

발행인 장영수 공공의료본부장  
편집인 지승준 홍보팀장  
주소 서울특별시 양천구 신정아펜1로 20  
전화 (02)6300-7530~2

# 서남동행N

VOL.8 2023. 8

## 공공의료본부, 폭염·폭우 속 의료 약자 위한 현장 방문



서울특별시 서남병원(병원장 장성희)은 7월 31일(월)부터 폭염, 폭우로 인한 의료 약자의 건강 돌봄과 주거환경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통합 돌봄 방문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서남병원 공공의료본부(본부장 장영수)는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 등 숙련된 전문인력으로

로 구성된 통합의료지원팀으로 지난해보다 빠르게 시작된 폭염과 장마, 태풍 카눈 등 폭우에 대비해 독거어르신과 주거환경이 열악한 반지하층 거주자 20여명을 대상으로 통합돌봄 방문서비스를 진행 중이다.

통합돌봄 방문서비스는 서울 서남권 일대(양천구, 강서구, 구로구, 금천구, 영등포구)를 중심으로 방문 진료시 현장 투약과 필요시 의료기관, 복지시설 등 지역사회 자원 연계까지 제공하고 있으며 오염도가 높은 주거환경의 개선과 반지하 침수 등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활동도 함께 수행 중이다.

서남병원 초대 공공의료본부장을 맡고 있는 장영수 진료부원장은 “폭염과 폭우 등 어려운 기상 여건도 사람마다 체감하는 것이 다르다”며 “재난 상황에서도 시민 모두가 평등하게 균형적인 공공의료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매달 정기적으로 방문진료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 양정옥 님(81세, 양천구)은 “겨울에는 감기 걸리지 말라고 핫팩과 양말을 가져다 줬다”며 “이번 여름에도 더위에 고생하지 말라고 선풍기와 상비약을 챙겨왔다”고 고마운 마음을 전했다.

서울특별시 서남병원 장성희 병원장은 “시민 누구나 차별 없이 수준 높은 공공의료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며 “서남병원은 서울 서남권 지역주민의 건강권 향상을 위해 현장 중심의 공공의료활동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지역사회 안전문화 정착을 위한

## 찾아가는 심폐소생술 교육 진행

오는 8월 31일(목), 금천호암노인복지관에서 찾아가는 심폐소생술 교육이 실시될 예정이다.

심폐소생술은 응급상황 발생시 심정지 환자의 생존율 향상에 기여하는 만큼 심폐소생술에 대한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이번 교육은 복지관 직원 및 지역주민 약 40여 명을 대상으로 효과적인 교육을 위해 2회차로 나누어서 진행된다.

구체적으로 ▲심폐소생술 이론 강의 ▲흉부압박 및 AED 사용법 실습 ▲하임리히요법 실습 등 교육이 방역수칙 준수 하에 진행된다. 한편 지역사회 안전문화 정착을 위해 진행되는 찾아가는 심폐소생술 교육은 연 6회 실시되며 지역사회 유관기관 종사자를 대상으로 실시된다.



### 언론 속 공공의료본부

## 지역사회 ‘의료 모세혈관’된 서남병원, 지역책임의료기관 선정 후 변화는?



서울특별시 서남병원 초대 공공의료본부장인 장영수 진료부원장이 의사신문과 인터뷰를 가졌다.

지난해 4월 보건복지부 지역책임의료기관으로 선정된 이후 변화된 점과 필수의료 협력 모델의 진행방향에 대해 밝혔다. 장영수 공공의료본부장은 “질병으로 미래를 꿈꾸지 못하는 이들에게 새 희망을 주는 것은 새 생명을 부여한 것과도 같은 의미가 있다”며 “의사로서의 삶이 지속되는 순간까지 건강을 잃어 힘아니 없는 의료약자에게 새로운 생명을 선사하는 가치 있는 일을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자세한 인터뷰 내용은 의사신문 8월 4일자 기사에서 확인할 수 있다.



기사 보러 가기